



2024  
VOL.01

# 지식공유 브리프



## 개발협력/지식공유 이슈특

ESG와 국제개발협력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발주 확대에 따른 대응전략



## 개발협력/지식공유 동향 분석

순환경제로의 전환, EU는 어떻게 추진해 가고 있나?



중동정세와 향후 전망



## KSP 포커스

리투아니아와 문화창의산업 (Cultural & Creative Industries)



## CID 연구포커스

아프리카 지역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국제개발협력



## 소식

한국의 대(對)우루과이 신에너지 협력 방안 연구: 수소에너지를 중심으로



YKSP 출장 소회 서면 인터뷰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 행사

한국경제연구학회 동계학술대회 KDI 세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현을 위한 지식 공유와 국제개발협력 방안



## ESG와 국제개발협력



전 조달청장, 고려대학교 특임교수

정무경

mookyung11@gmail.com

기업의 경영 목적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쟁이 최근에 활발히 진행되면서 전통적 기업의 목적인 주주 이익 극대화에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UN 등은 1970년대부터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 전략을 비판하면서 환경과 개발의 조화가 필요함을 제기한 바 있고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Growth, SDG)을 강조해 왔다.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도 기본적으로 지속가능발전에서 파생된 개념이다. ESG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는 2004년 UNGC의 'Who Cares Win' 보고서에서 처음 쓰였다. 2006년에는 UN이 발표한 사회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에서 기업의 투자 결정 과정에서 재무적 요인과 함께 비재무적 요인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비재무적 요인을 통칭하는 개념을 'ESG'로 본다. ESG는 지금까지 기업이 관심을 가져온 이윤 극대화 등 재무적 요인과 함께 환경(E), 사회적 책임(S), 투명한 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업 경영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대한상공회의소, 2022).<sup>1)</sup>

한편, 국제개발협력 분야도 환경과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인권, 공급망, 글로벌 공공재(global public goods) 제공 등 새로운 협력 수요가 발생하고 개발도상국의 성장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포용적 회복과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권율,

2023).<sup>2)</sup>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민간에서 발전되고 있는 ESG 철학과 접근방법 등을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SG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라는 세 축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디스(Moody's), S&P Global(DJSI), 에코바디스(EcoVadis), 한국ESG기준원(KCGS) 등 국내외 평가기관과 국민연금과 같은 투자기관의 ESG 평가 가이드선과 지표를 분석하면 ESG의 핵심 내용을 도출할 수 있다. 평가 목적, 평가 점수 활용 목적 등에 따라 평가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업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기업이 스스로 지속가능성을 내재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환경(E) 부문은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량 감축 여부, 오염 및 폐기물 관리, 청정 생산, 친환경 개발 등으로 구성된다. 사회(S) 부문에는 노동 관리, 보건 및 안전, 공급망 관리, 제품 안전 및 품질, 이해관계자 반대, 사회 공헌 등이 포함된다. 지배구조(G) 부문은 주주 권리, 이사회 구성과 활동, 감사제도, 관계사 위험, 배당, 사업 윤리, 세무 투명성 등이 대표적인 지표이다. 결국 ESG는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요소로 기업이 얼마나 지속가능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1 대한상공회의소(2022)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기업 가이드 ESG A to Z.

2 권율(2023) 2024년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전망: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개발금융의 역할, 2023 지식공유 브리프 특별호, 한국개발연구원, 5-7.



〈표 1〉 주요 평가 기관별 ESG 평가 구분

| 평가 기관      | 평가 항목 분류                  | 평가 목표                  | 점수 산정 방법            |
|------------|---------------------------|------------------------|---------------------|
| 무디스        |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 투자 정보 제공               | ESG점수(+) 및 논란 점수(-) |
| S&P Global |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 투자 정보 제공               | 실문 답변 점수(+) 종합      |
| 에코 바디스     | 환경, 노동 및 인권, 윤리, 지속가능한 구매 | 공급자와 고객사와의 지속가능한 소통 강화 | 실문 답변 점수(+) 종합      |
| 한국ESG 기준원  |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 기업별 ESG 수준 진단 및 정보 제공  | ESG점수(+) 및 논란 점수(-) |

출처: 박지원 · 이예림(2022).

또한 최근에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이하 ISSB)를 중심으로 ESG 정보 공시 표준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ESG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ISSB는 2023년 6월에 S1(일반적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 공시안)과 S2(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시안)를 발표하였다(ISSB, 2023. 6. 26.).<sup>3)</sup> S1은 투자자가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이 단기/중기/장기에 걸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일반적인 위험과 기회'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S2는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지속가능성 재무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S2는 (i)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하는 의사결정기구(governance), (ii)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 비즈니스 모델과 가치사슬, 전략과 의사결정, 재무 영향 등을 고려한 추진 전략(strategy), (iii) 기후변화 관련 위험 식별, 평가, 우선 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한 위험관리(risk management), (iv)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 관련 목표 설정에서 사용된 지표 등 기후 관련 공시 이행 매트릭스와 목표(metrics and targets)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KSSB)에서도 ISSB가 지난해(2023년) 확정 발표한 ESG 공시기준안을 바탕으로 한국형 ESG 공시기준안을 수립하고 있는데 최종안은 2024년 6월에 제시될 예정이다.<sup>4)</sup>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새로운 개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전통적 개발협력은 수원국의 경제개발 역량 강화, 빈곤감소, 성장과 개발에 대한 사회-경제적 제약 요인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수원국의 수요를 반영하여 환경과 기후변화, 분쟁과 난민, 인권과 공급망, 사회와 자연재해, 생물 다양성 등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협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SG 철학과 접근방법은 이러한 문제에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 ESG는 민간기업의 경영활동에 구체적으로 적용된 개념이기 때문에 정부와 정부 간에 추진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전면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UN 등에서 논의된 지속가능발전을 토대로 ESG가 제안되었고, 특히 ESG 적용 대상 중에 환경과 사회 부문에서 논의된 내용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ESG와 국제개발협력의 공통 영역은 지속가능성이다. 국제개발협력의 중요한 목적은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다. ESG에서 적용되고 있는 환경과 사회 관련 내용도 궁극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ESG 철학과 접근방법이 국제개발협력에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ESG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탄소중립,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등 환경 관련 내용은 개발도상국의 녹색 전환과 글로벌 기후변화의 대응 필요성에 접목할 수 있다. 특히 ISSB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시안(S2)에서 제시된 기후변화 관련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이행 목표 등은 그린 ODA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좋은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그린 전환(green transition)을 위해서 ODA를 적극 활용하고 부족한 재원을 민간에서 동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김은주, 2023<sup>5)</sup>; 방호경·이소희, 2023<sup>6)</sup>). 국제개발협력과 ESG가 함께 지향하는 지속가능성을 토대로 최근 급변하는 개발협력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정부와 민간 부문, 국제기구와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 등 개발협력 주체 간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

3 ISSB(2023.6.26.) "ISSB issues inaugural global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 <https://www.ifrs.org/news-and-events/news/2023/06/issb-issues-ifrs-s1-ifrs-s2/>, 검색일: 2024. 1. 31.

4 ESG경제(2024. 1. 18.) "KSSB 공시기준, 3월 초안 6월 최종안 나올 것",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dxno=5641>, 검색일: 2024. 1. 31.

#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발주 확대에 따른 대응 전략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차장(책임연구원) 정지훈  
jjjung@icak.or.kr

## 투자개발형 사업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해외건설시장

우리나라의 해외건설산업은 녹록지 않은 시장 환경에서도 2020년부터 4년 연속 300억 달러 초과 수주를 달성하며 선전하고 있다. 글로벌시장 조사 기업인 IHS Markit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세계 건설 시장의 규모는 2023년 대비 6.0%가 증가한 14조 6,000억 달러로 전망되어 해외 건설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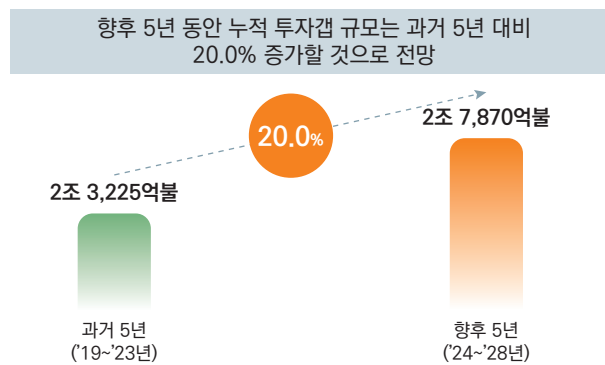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인 부채 급증으로, 건설 시장에 대한 정부의 투자 여력은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Global Infrastructure Hub<sup>1)</sup>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인프라 투자 필요액 대비 공급 간 격차를 의미하는 인프라 투자 소요액(Investment Gap)은 향후 5년(2024~2028)간 총 2조 7,87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신규 도로·철도, 발전시설 및 노후 인프라에 대한 개보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

〈표 1〉 세계건설시장 규모 전망 (단위: 억 달러, %)



자료: IHS Markit(<https://connect.ihsmarkit.com>, 접속일: 2024. 2. 5).

〈표 2〉 전 세계 인프라 누적 투자 소요액(Gap) 비교



자료: Global Infrastructure Hub(<https://outlook.gihub.org>, 접속일: 2024. 2. 6).

1 미국, 프랑스를 비롯한 G20가 2014년, 호주에 설립한 비영리단체로, 인프라 정보 생산-공유-인건 발굴을 통해 지속가능한 인프라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개발협력  
지식공유  
이슈 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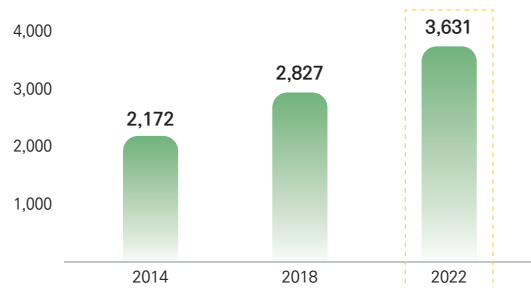
총 투자 소요액을 연간으로 따져 보면, 매년 5,574억 달러 규모의 투자 부족이 발생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 및 중저소득국 그룹 전반에서 사업 발주 방식을 단순 도급이 아닌 투자개발형으로 전환하고 있다.

먼저 신규 사업과 노후 인프라의 성능 개선을 위한 투자개발형 사업이 활발한 선진국 시장을 보면, 인프라 사업에 투자된 PF(Project Finance) 대출(loan) 규모는 최근 5년(2018~2022) 간 연평균 6.5%가 증가하여 2022년에는 3,63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프라 시설물이 계약서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면 해당국 정부가 사업자에게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보조금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AP(Availability payment) 방식을 적용하여 투자개발형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 ●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중저소득국 시장의 민간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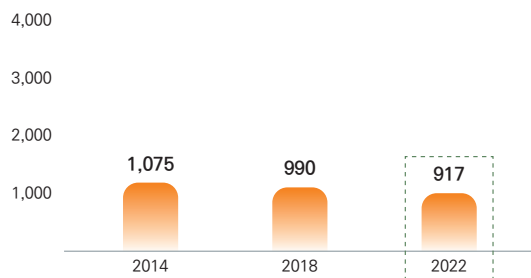
반면 베트남을 비롯한 중저소득국(low and middle income)<sup>2)</sup>은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따라 교통, 발전 인프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높은 부채 비율과 신용도 등으로 선진국보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중저소득국 인프라에 대한 2021~2022년 연평균 민간투자액(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PPI)은 840억 달러 수준으로 회복했으나 코로나 19 발발 이전인 2018~2019년 연평균 투자액 934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3〉 선진국 PF 대출(loan) 현황(단위: 억 달러)



자료: Refinitiv(<https://workspace.refinitiv.com/web>, 접속일 : 2024. 2.12).

〈표 4〉 중저소득 국가의 민간투자액 현황(단위: 억 달러)



자료: World bank(<https://ppi.worldbank.org/en/ppi>, 접속일 : 2024. 2.15).

앞서 살펴본 선진국의 PF 대출 증가율과는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저소득국 정부는 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 유치와 함께 보조금을 증대하며 ODA 금융·다자개발은행(MDB)의 활용도 추진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 WB)에 따르면, 2022년도 개발도상국 지역(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EMDE)의 투자개발형 사업 자금조달 구성 비율은 대출(Debt), 자본금(Equity), 정부 보조금(Subsidy)이 각각 67%, 24%, 9%로 나타났다. 2022년도 자금조달 구성을 2021년과 비교해 보면 대출과 자본금의 비중은 각각 3%p, 2%p 감소한 반면, 정부 보조금은 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도국 투자개발형 사업은 민간투자 유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조금 등 공공의 참여

2 Worldbank GNI per capita 기준



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OECD 국가의 ODA(2,040억 달러<sup>3)</sup>) 및 다자개발은행(MDB) 금융(2,435억 달러<sup>4)</sup>) 등을 사업 단계별로 활용하는 복합금융 모델을 선호하는 경향도 지속되고 있다.

## ●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관련 애로사항 및 지원 전략

정리해 보면, 해외 건설 시장의 발주 트렌드는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에 급변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 건설사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업계는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경험 부족과 금융 경쟁력의 열위 등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최근 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우리나라 기업은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 사업에 참여해 보려고 하지만 입찰 등의 영업 활동을 위한 초기 매물비용이 커서 사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적극적 투자자 발굴에도 어려움이 있다. 발전 프로젝트는 발전공기업, 건설사 등이 중심이 되어 사업주 구성과 함께 사업비 조달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도로, 철도를 비롯한 교통 프로젝트는 건설사의 소액 지분 투자를 제외하고는 투자자를 찾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러한 애로 사항을 완화하고 투자개발형 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전략 3가지를 제시한다. 첫째는 선진국 및 중저소득국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투 트랙(two track) 전략이다. 선진국 투자개발형 사업을 원활하게 수주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사업을 통해 초기 매물비용을 지원해 주는 정책펀드 마련이 우선 필요하다. 한편, 중저소득국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i)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을 통한 정책 자문·사업 발굴 (ii) EDCF, EDPF<sup>5)</sup>를 활용한 인프라 지원 (iii) ECA 금융<sup>6)</sup> 및 정책펀드(PIS, GIF)<sup>7)</sup> 등으로 복합금융을 활성화하는 것이 현실적 진출 방안이다.

둘째, 지분 출자 한도와 관련된 제도를 보완하고 세컨더리마켓(Secondary Market)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지분 출자 한도(현재 KIND의 지분 출자 한도는 국내 투자자 중 최대주주 지양)를 사업의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시점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개발도상국 사업에 대한 수익증권 및 대출채권의 원활한 'Exit'를 지원하는 세컨더리마켓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투자개발형 사업과 관련된 통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항목에 해외 건설 실적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해외사업 우수 공공기관 및 직원에게 포상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타 산업과 융합된 형태의 해외 수주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해외건설 촉진법」상 해외건설사업의 범위를 현실화하고 투자개발형 사업과 관련된 통계 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추진되어야 한다. ▣

3 OECD DAC 30개 회원국의 총 ODA 지원 규모

4 World Bank Group 1,044억 달러(commitment), EBRD 131억 달러(annual bank investment), EIB 783억 달러(financing agreement), ADB 205억 달러(total ADB operation), IADB 147억 달러(approvals), AfDB 82억 달러(approvals), CABEI 43억 달러(approvals)의 합(2022년 기준)

5 한국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경험증진자금으로 Economic Development Promotion Facility의 약자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서 정하는 ODA 적격 기준에 부합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및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예: 인프라 사업 등)에 제공되는 금융임

6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같은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이 우리 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금융 상품을 의미함

7 우리나라의 해외건설산업에 대한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펀드임. PIS는 Plant, Infrastructure, Smart City의 약자이며, GIF는 Global Infra Fund의 약자임



## 순환경제로의 전환, EU는 어떻게 추진해 가고 있나?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  
소장 박상우

bigsw21@naver.com

국제사회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질서의 재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ESG 경영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도록 ESG 공시를 의무화·표준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무엇인지 규정하는 「택노미법」을 유럽연합(EU)이 마련하였다. 이 법은 2019년 12월 중장기 성장전략인 EU 그린딜 정책과 함께 금융정책의 흐름을 녹색 전환으로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그린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면밀한 정책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2050년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필요한 정책을 선정하고 협의를 통해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다. 대표 정책으로는 순환 경제를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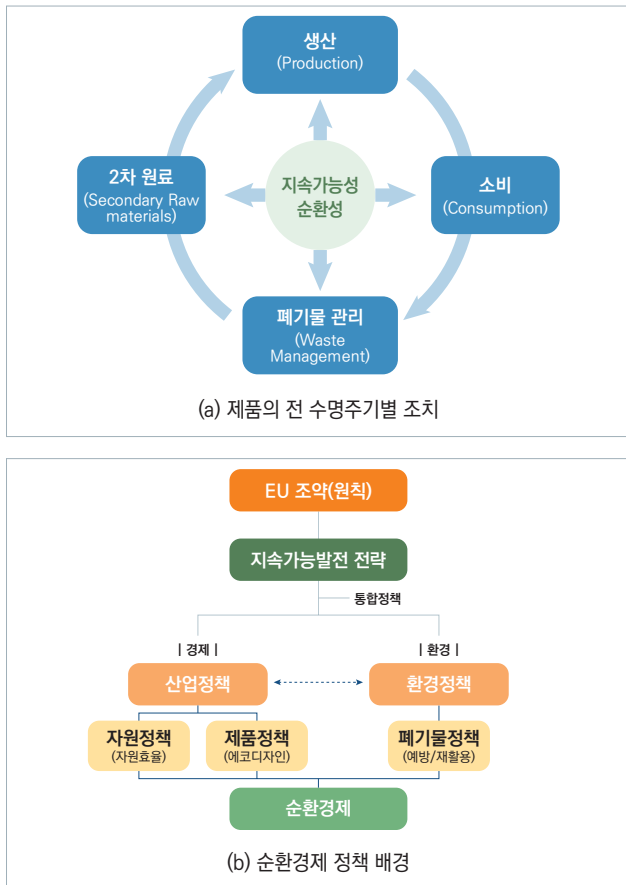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탄소중립에도 기여한다. 이는 자원 채취와 가공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이 발생하고 물 스트레스와 생물 다양성 손실의 약 90%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2022년 4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가 발표한 기후변화의 완화와 관련된 평가보고서(AR6)에도 담겨 있다. 이 보고서의 감축 시나리오에는 공급 측면과 함께 에너지 및 자원 소비 감소 등 수요 측면도 반영되었다. 에너지, 수송, 건물 등 많은 부문에서 재생에너지의 공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지만, 산업 부문은 여전히 화석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천연자원(1차 원료)을 최소한 사용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의지로 마련한 정책이 순환경제이다. 2015년 12월 순환경제 정책(Ver.1)에 이어 2020년 3월 EU는 새로운 산업전략을 마련하고 녹색 전환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갖추려는 정책 일환으로 순환경제 정책(Ver.2)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 정책은 제품의 전 수명주기 중 생산과 소비 그리고 수명 종료 단계에서 2차 원료를 사용하여 순환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1 2050년에 온실가스 순 배출이 없고 경제성장이 자원 사용과 분리된 현대적이고 자원 효율적이며 경쟁력 있는 경제를 통해 EU를 공정하고 번영하는 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순환경제는 더 스마트한 제품 설계, 더 오래 사용, 재활용 등을 통해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자연을 재생하여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그림 1] EU의 순환경제로의 전환 조치와 정책 배경



자료: 박상우(2024).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로의 전환 - EU의 지속가능한 생산 관련 법제 동향,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순환경제 정책은 지금까지의 재활용과 자원순환 정책과 차이를 보인다. 지속가능성과 순환성을 고려해서 제품을 생산하였는지, 그 제품에 대해 신뢰성 있는 평가방법론으로 정량화된 등급을 부여하고 소비가 이뤄지도록 하였는지에 따라 제품의 수명 종료(End of Life) 단계에서 순환 혹은 재활용하는 데 품질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적 의미는 널리 알려졌지만 실질적으로 이행을 위한 정책 수단을 펼쳐가는 방식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이는 국제개발협력 지원에서도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U가 제품을 전 수명주기별로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한 법제화와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 단계는 가장 앞서 제품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성과 순환성을 부여하기 위한 법제화로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 개정안」(ESPR)을 마련하였다. 지속가능성 요건과 정보 요건을 의무화하고, 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제품은 시장에 출시하지 못하는 강력한 조치를 펼치고 있다. 더욱이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대해서도 지속가능성 등이 2050년까지 자리 잡히도록 전환 계획을 '산업배출법률'(IED)을 통해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 산업 부문에서 녹색 전환이 이뤄지도록 금융정책에서 녹색금융(전환금융)을 통해 투자나 지원이 되도록 하는 정책 흐름을 이끌고 있다. 또한 앞서 설명한 ESG 경영이 이뤄지도록 「택소노미법」을 통해 환경 목표 6가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기술심사기준(TSC)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또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포함되어 있다.

둘째, 소비 단계는 소비자가 전자제품을 선택할 때 에너지효율 등급을 고려하듯이, 모든 제품에 대해 지속가능성과 순환성 등급을 도입하여 누구나 쉽게 제품을 선택하게 함으로 생산 단계부터 녹색 전환을 유인하려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유인은 제품 판매 시점과 판매 후 시점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비자 권한 부여 법률」(ECGT)을 통해 판매 시점에 제품의 내구성과 수리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 제품 여권'(DPP)의 형태로 제공하여 소비자가 지속가능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판매 후 시점에서는 「제품 판매 계약 법률」(SGD)을 통해 판매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는 2년 이내에 명백하게 드러난 적합성 결함에 대해서만 판매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법적 보증을 넘어 수리를 촉진하는 새로운 법률인 「제품을



개발협력  
지식공유  
동향 분석

수리할 권리 법률」(RGD)을 2023년 3월에 제안한 것도 제품을 오래 유지하도록 하는 EU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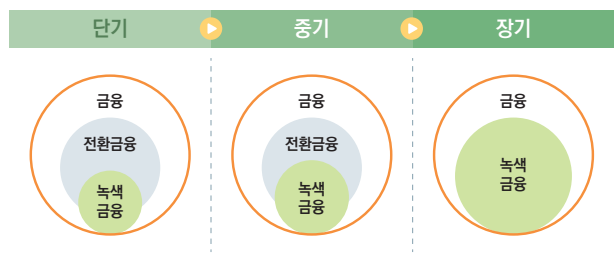
셋째, 폐기물 관리 단계는 2018년 8월 개정된 「폐기물기본법」에 따라 폐기물 발생 이후보다 예방(Prevention)에 집중하는 개정이 이뤄졌다. 대표적으로 폐기물 계층 구조(Hierarchy)를 준수하는 유인책으로 경제적 수단과 기타 조치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는 핵심 조치로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모델을 촉진하고, 자원 효율적이고 내구성 있는 제품과, 수리·재사용·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제품의 설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더욱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통해 제품의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영향, 폐기물 계층 구조를 준수하는 조치와 EPR 수립 시 최소 요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치와 요건에는 내구성이 있고 쉽게 수리할 수 있으며, 폐기물이 된 후 재사용 및 재활용을 하는 데 적합하도록 제품을 설계하도록 생산자에게 예방에 관한 책임을 더욱 강하게 부과하고 있다.

넷째, 2차 원료 단계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중요 원자재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9월 중요 원자재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2023년 3월에 ‘중요 원자재 법안’을 제안하였다. 2030년까지 전략 원자재에 대한 생산능력 목표를 연간 전략 원자재 소비량 기준으로 추출 능력은 최소 10%, 가공 능력은 최소 40%, 재활용 능력은 15%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려는 조치이다.

이처럼 EU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제품의 전 수명주기 별로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지속가능성과 순환성을 혁신하는 데 있다. 이러한 EU의 조치가 국제사회로 확대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UN의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을 들 수 있다. 지속가능성과 순환성은 세계 모든 국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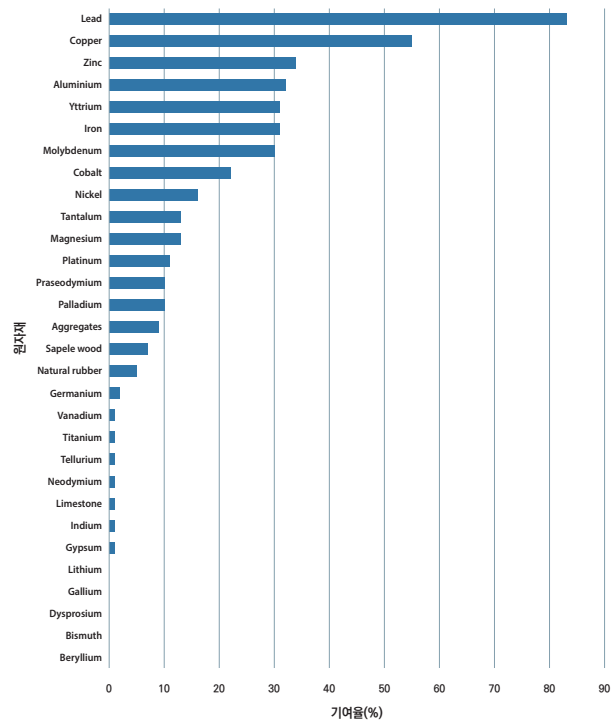
추진해야 할 원칙이므로 국제개발의 지원에서도 이 원칙을 기반으로 하되, 지원 국가의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

[그림 2] 시간 흐름에 따른 녹색 금융과 전환 금융의 관계



자료: 박상우(2024),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로의 전환 - EU의 지속가능한 금융 정책과 ESG 관련 법제 동향,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그림 3] EU의 원자재 수요에 대한 재활용 원료의 기여도 : 최종 재활용 투입률(EoL-RIR, 2022년)



자료: 박상우(2024),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로의 전환 - EU의 지속가능한 원자재 공급 정책 및 법제 동향,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 중동 정세와 향후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프리카중동 중남미팀  
부연구위원 **강문수**  
kangms@kiep.go.kr

### ● 개요

2023년 10월 7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전쟁 당사자뿐만 아니라 미국, 이란 등 주요국의 개입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과 걸프 국가의 전쟁 확산 억제를 위한 노력으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으나 미국과 유럽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되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이 레바논, 시리아 등의 공격을 받아 반격하고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공격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역내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와 외교 정상화를 꾀하면서 2020년 아브라함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중동 데탕트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인도-중동-유럽 경제 회랑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장기화되자 중동 평화 무드는 다시 이스라엘-아랍 간의 갈등 구도로 바뀌고 있다.

### ● 중동 정세 변화의 원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는 최근 중동 내 정세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중동 지역은 이스라엘-아랍 간 갈등과 반이란-친이란 간의 갈등이 이어졌다. 이러한 갈등 구도에서 아랍 국가는 팔레스타인 독립을 계속 지지했으나 최근 들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외교 정상화가 이뤄지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중국의 중재로 외교 관계를 복원하는 일련의 이벤트가 일어났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 유가가 70~80달러대를 유지하면서 특히 걸프 국가(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에서 탈석유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첨단기술을 유입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사우디 비전 2030, 아랍에미리트의 센테니얼 2071, 카타르 국가비전 2030 등 걸프 국가가 발표한 국가전략은 에너지 의존적 경제발전에서 벗어나 경제다각화와 고도화를 꾀하고자 하는 각국의 의지를 보

여준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네옴 시티 등의 기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점, 아랍에미리트가 중동 최초로 우주인 프로젝트를 시작한 점 그리고 카타르가 월드컵을 개최한 점은 중동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의 일환으로 중동 국가와 밀착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이란 외교 정상화를 이끌어냈으며 중동 주요국(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란, 이집트)이 2024년 1월 1일자로 브릭스(Brazil, Russia, India, China, Republic of South Africa, BRICS)의 공식 회원국이 되기도 하였다. 걸프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가 산업 다각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꾀하면서 무엇보다 역내 정세의 안정이 가장 주요한 목표가 되었다. 중동 내 평화 유지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확산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1973년에 오일 쇼크를 유발했던 석유 수출 금지 조치도 재현되지 않았다.

둘째, 미국이 인도태평양전략에 집중하면서 중동 내 영향력이 약화되었으며 대중동 정책이 과거와 달리 소극적으로 변했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븐 사우드 국왕은 알타회담 직후인 1945년에 안보와 석유를 교환하는 회담을 했으며 1980년 카터 대통령은 카터 독트린을 통해 페르시아만에서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군사 개입도 가능하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셰일 혁명을 통해 자국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동은 그 중요성이 떨어졌으며 중동 지역에서 미군의 철수를 차츰 진행했다. 중국은 중동 내 군사 공백이 발생한 시점에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중동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했으며 러시아도 중동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갔다. 이에 위기를 느낀 미국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의 외교가 정상화되도록 중재하며 간접적으로 중동에 영향력을 과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들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 정

상화를 추진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 안보동맹을 요구한 것은 중동 내 정세 변화를 시사한다.

하마스는 이러한 정세 변화가 감지되면서 팔레스타인이 국가로 인정받기를 원했고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써 이스라엘-아랍 갈등 구도를 재현하고자 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수교 논의는 중단되었다. 또한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공격하고, 레바논 헤즈볼라와 시리아 민병대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공격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대응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뿐만 아니라 2024년 1월 초 이란 솔레이마니 전 사령관 4주기 추모식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의 배후로 이란 정부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목하면서 이번 전쟁이 미국과 이란의 참전으로 이어질 뻔하기도 하였다.

## ● 전망

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지 여부는 미국과 이란의 대응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러시아 등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면서 중동 지역을 둘러싼 진영 간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 확산 여부에 따라 홍해와 호르무즈해협의 불안정성이 커지면 국제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확산 가능성 시나리오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탈석유화와 산업다각화를 꾀하는 걸프 국가들은 역내 정세 불안정성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 둔화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종식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전쟁을 계기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두 국가 해법이 다시 대두되고 있으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 모두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양측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

1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시리아를 계속 공습하면서 하마스 3인자인 살레흐 알 아루리가 사망하고 친이란 세력이 대거 사망하는 등 국지적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2 본 사건은 이라크 ISIS가 폭탄 테러의 배후를 자처하면서 일단락되었으나 2023년 12월 25일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으로 이란혁명수비대의 고위 사령관이 사망한 데 이어 해당 테러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이란 내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였다.



## 리투아니아와 문화창의산업 (Cultural & Creative Industries)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2팀  
연구원 안치영  
chiyeong@kdi.re.kr

### ● 북유럽 및 발트해 연안의 작지만 강한 나라, 리투아니아

발트 3국(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중 가장 큰 영토와 인구 그리고 경제 규모를 보유한 나라, 실질적으로 독립(1990)한 지 15년 만인 2004년에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고, 2015년에는 유로존에, 2018년에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까지 가입한 나라. 북유럽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리투아니아는 인구가 약 273만 명(2022)이고, 면적은 한반도의 약 3분의 1에 불과한 비교적 작은 나라이지만 구 소비에트 연방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독립을 선언하고 그로부터 단기간에 EU와 NATO 그리고 OECD에도 가입한 저력을 지닌 국가이다.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다소 생소한 국가이지만 2023년 7월 NATO 정상회의가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Vilnius)에서 개최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당시 NATO 정상회의 이후에 함께 진행된 한-리투아니아 정상회담을 통해 2021년 주한 리투아니아 대사관이 처음 개설된 데 이어 주리투아니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개설이 결정되기도 하였다.

### ● 23/24 리투아니아 KSP

2004년부터 실시된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은 한국의 과거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기를 희망하는 개발도상국과의 개발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자문 주제를 다양화하고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호주 등 선진국과도 KSP를 추진하면서 다차원적인 국제협력 사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23/24 리투아니아 KSP'는 리투아니아 문화부(Ministry of Culture)와 함께 <리투아니아 문화창의산업(Cultural Creative Industries, CCI)을 위한 아트테크(Art-Tech) 생태계 개발>이라는 주제로 2023년 6월에 사전 협의를 시작해 10월에 착수보고회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사업은 북유럽 국가 대상 첫 KSP라는 점과 KSP 주제로는 최초로 한국의 문화산업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 ● 문화창의산업: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CCI)

문화창의산업(CCI)은 주로 문화 및 창의 상품과 서비스의 창작, 생산, 유통, 소비와 관련된 다양한 범위의 경제활동 및 부문을 포함한다. OECD와 EU에서는 최근, 해당 산업이 생산 가치와 고용 창출 측면에서 기여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OECD(2018)는 CCI의 핵심이 혁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창의성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기술혁신과 소프트혁신(Soft Innovation)을 통해 산업혁신을 촉발하고 지역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해당 산업에 대한 투자와 인력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EU는 CCI 생태계가 EU 내 부가가치의 약 3.95%를 차지한다는 점과 이와 관련된 기업 약 120만 개(그중 99.9%가 중소기업)에 직원 약 800만 명이 고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EU의 주요 산업전략의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다. 리투아니아 정부도 2021-2030 문화창의개발정책(Culture and Creativity Development Programme for 2021-2030)을 바탕으로 CCI에서의 경제적 고부가가치 및 혁신적 사회서비스 창출을 통한 고용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아트테크'를 통한 혁신기술 기반의 생태계 개발과 디지털 전환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문화산업의 경제적 파급력과 국가경쟁력에 끼치는 영향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문화산업은 케이-컬처(K-Culture)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

다. 문화체육관광부(2023)에 따르면 한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은 2017~2021년에 매출 연평균 5%, 수출 10%, 사업체 수 0.7%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23년 전망치 기준으로 한국의 콘텐츠 시장 규모는 약 791억 달러로 세계 7위의 글로벌시장 점유율을 보이며, 2021년 이후 2026년까지 연평균 4.26% 성장하여 글로벌 콘텐츠 산업에서 시장 경쟁력이 계속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벤처 지원 확대, 정책금융(K-콘텐츠 펀드, 콘텐츠IP 펀드) 지원, 인재 양성, 세액 공제와 같은 세제 지원 제도 등이 활용되고 있다.

## ● 리투아니아 KSP 첫 현지 출장: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

'23/24 리투아니아 KSP' 연구진 및 KDI 사업관리자는 2023년 10월 14~21일에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해, '23/24 리투아니아 KSP' 착수보고회 및 세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진 1〉 리투아니아 문화부 장관과의 면담



1 Cultural & Creative Industries (CCIs): Fulfilling the Potential CCIs and Innovation: Supporting Cross Feeds for Local Development, Parallel Session B2

2 창의산업 내에서의 상품과 서비스의 고급화 및 고부가가치화와 같은 비기술적 측면의 무형적 혁신

3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sectors/cultural-and-creative-industries\\_en#cultural-and-creative-industries-ecosystem](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sectors/cultural-and-creative-industries_en#cultural-and-creative-industries-ecosystem) (접속일: 2023. 1. 3.)

4 문화예술 분야에서 사용되는 혁신적인 디지털 및 기술을 통칭

5 문화체육관광부(2023), 2021년 기준 콘텐츠 산업 통계

6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2023), 2022 해외콘텐츠 시장 분석

7 <https://www.investkorea.org/ik-kr/cntnts/i-130/web.do> (접속일: 2023. 1. 8.)



2023년 10월 16일(월) 리투아니아 문화부에서 개최된 착수 보고회에서 시모나스 카이리스(Simonas Kairys) 장관은 자문 주제의 정책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한국의 경험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 협력·지원 의사를 밝히며 추후에도 문화 분야에서 한국과 지속적인 네트워킹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후 협력 부처인 리투아니아 문화부를 비롯해 필름센터, 문화위원회, 문화연구원, 문화창의산업협회, 예술진흥소, 투자진흥원, 혁신센터, 혁신청, 게임개발자협회, 발틱필름클러스터, 민간 문화예술센터 및 문화공간기업, 음악비즈니스협회, 리투아니아 내 여러 대학교과의 면담을 통해 문화창의산업 및 아트테크 관련 현황에 대해 듣고 연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출장 기간에 본 KSP의 협력 부처인 리투아니아 문화부는 문화창의 산업을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주요 영역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지속해서 보여주었다. 이는 문화부 장관 및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태조사를 위해 약 30개의 기관이 면담 일정에 참여하였으며, 각 기관의 관계자는 자신이 소속된 조직 및 사업에 대해 발표하였다.

질의응답을 통해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관계자들이 담당 업무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과,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공·민간 영역에서 프로젝트가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AR(증강현실)과 VR(가상현실)과 같은 혁신기술이 문화예술 분야와 결합되어 있었는데 이는 한국에도 뒤지지 않은 수준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한편 리투아니아 문화창의산업 내 공공·민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민간의 효과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현지 관계자는 영어로 원활한 소통이 가능했고 협력 부처인 문화부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관련 공공·민간 영역의 다양한 기관이 높은 주인 의식(Ownership)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인상 깊었다.

'23/24 리투아니아 KSP'는 24년 2월에 현지 세미나 및 세부 실태조사를 완료한 이후,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 그리고 최종보고회 및 고위 정책 대화 등의 사업단계가 남은 만큼 한국의 문화산업 발전 경험을 나누고 해당 발전 과정에서 공공민간파트너십(PPP)의 중요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문화창의산업을 통한 한-리투아니아 경제협력

리투아니아 자체만으로는 매우 작은 시장으로 보일 수 있지만, 5억 명 이상의 규모인 유럽연합(EU)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는 한국 기업이 유럽으로의 투자를 고려할 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2023년 7월 한국을 방문한 리투아니아 경제혁신부 아우스린 아르모나이테(Aušrinė Armonaitė) 장관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이 리투아니아를 유럽 시장을 공략하는 교두보로 삼기를 기대한다면서 E-Residence 제도를 통해 외국인이 리투아니아에서 디지털 사업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리투아니아는 세계은행(WB)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에서 전체 190개국 중에서 11위를 차지하는 등 기업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8 실제로 리투아니아는 영어능력지수(EF English Proficiency Index)가 총 113개국 중 21위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https://www.ef.com/wwen/efpi/regions/europe/lithuania/>, 접속일: 2024. 1. 11.)

9 "리투아니아는 EU 진출 교두보...韓기업 팔 벌려 환영", 매일경제, 2023. 7. 13.

10 EU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도 리투아니아의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솔루션

11 [https://archive.doingbusiness.org/content/dam/doingBusiness/pdf/db2020/Doing-Business-2020\\_rankings.pdf](https://archive.doingbusiness.org/content/dam/doingBusiness/pdf/db2020/Doing-Business-2020_rankings.pdf) (접속일: 2024. 1. 11.)



KSP  
포커스

리투아니아 문화부는 아트테크 영역에서 콘텐츠산업뿐만 아니라 공예, 버추얼아트(Virtual Art), 공연예술, 디자인, 뉴미디어, 건축, 출판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전방위 분야를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 만큼 이와 관련된 문화콘텐츠 및 IT산업 분야의 국

내 기업 및 기관의 진출과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KSP가 국내 기관 및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발하고 장기적으로는 한-리투아니아의 문화산업 차원에서 활발한 경제적 협력으로 이어지는 교두보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

〈사진 2〉 리투아니아 혁신청 면담



〈사진 3〉 리투아니아 게임개발자협회



## 아프리카 지역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과 국제개발협력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성과평가팀 팀장 **우혜영**  
hywoo@kdi.re.kr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연구팀 연구원 **이소희**  
sohee@kdi.re.kr

본 연구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상호연계성을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거시적으로 모색하고, 미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규모 태양광 배터리 공급이 지역사회 주민의 삶과 교육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여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 배출의 저감과 대응 문제는 글로벌 공동 과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전력 없이 생활하는 인구의 77%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에너지 보급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제기구는 OECD, UN 등을 중심으로 한 Beyond GDP 측정, 지표 체계 구성·수립과 더불어 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 지역 국제개발협력 주체인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해당 전략에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내용과 SDGs 그리고 AfDB의 개발우선순위(High 5s) 등을 포괄하는 액션플랜을 마련하였다. 국제기구에서의 에너지 전환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단순히 신재생에너지로의 기술적 전환을 지

원할 뿐 아니라 거버넌스, 양성 평등, 일자리 창출, 지역 통합 등 다양한 분야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선행 연구(Fuso-Nernini et al., 2017; IPCC, 2022)에서 SDGs 목표 간에 그리고 기후변화 완화 노력과 SDGs 목표 간에 다양한 상호 관계(Synergies)와 상충 관계(Trade-off)를 포함한 상호연계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글로벌환경전략연구소(IGES)의 SDG 연계성 분석 및 시각화 툴(V.4)을 활용하여 확인한 결과, 대체로 에너지의 보편적 접근 보장(7.1) 및 에너지 효율화 증진(7.3)은 빈곤, 기아, 건강, 교육, 성평등, 일자리, 혁신, 도시 등과 대체로 양의 관계였고, 재생에너지 비율 증대(7.2)는 그에 더해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육상 생태계, 포용적인 제도 등과 관련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중고소득국가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에너지 효율 향상(7.3) 및 재생에너지 비율 증대(7.2)와 동시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목표가 SDGs 9.4번(2030년까지 기반 시설과 산업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며, 환경친화적인 기술과 산업 프로세스 도입)으로 확인되었다.



〈표 1〉 SDG 7번 목표의 세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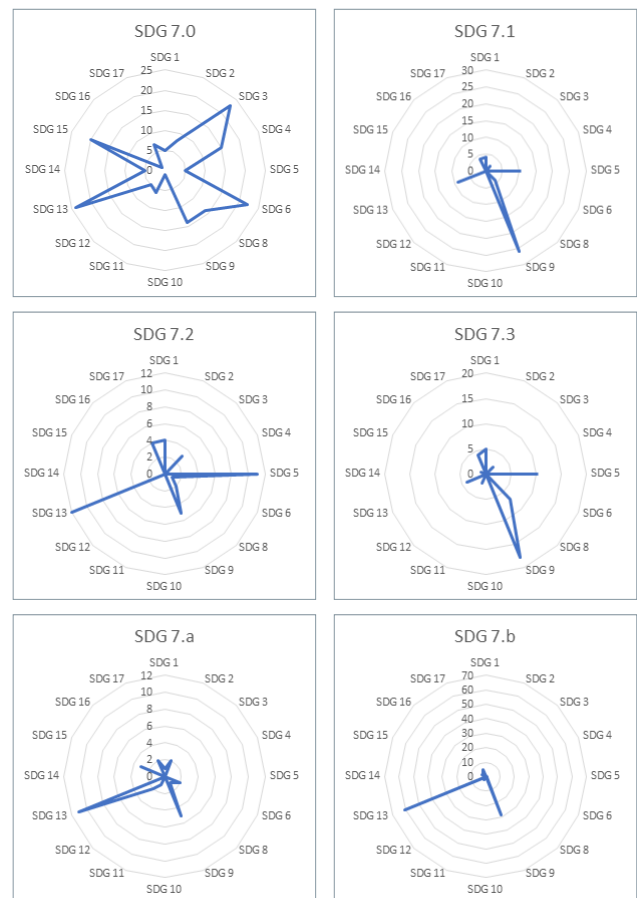
| #   | 세부 목표 내용  |
|-----|---|
| 7.0 |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의 접근 보장한다.  |
| 7.1 | 2030년까지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
| 7.2 |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대폭 늘린다.   |
| 7.3 |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효율성 개선율을 두 배로 늘린다.   |
| 7.a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선진화되고 보다 청정한 화석연료기술 등을 포함하여 청정에너지연구와 기술개발에 대한 접근을 촉진할 수 있는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기반시설과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진한다. |
| 7.b |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도국 및 내륙개도국에서 모두를 위해 각국의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사회기반시설을 확대한다.          |

자료: KOICA 오픈 데이터 포털(<https://www.oda.go.kr/opo/ngdid/opoNgdidSdgsSustainList.do>, 검색일: 2023. 8. 17.)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SDGs 빈도를 분석하기 위해 ODA KOREA 자료를 바탕으로 SDG 7번 목표를 가지고 있는 556개 사업을 연구한 결과, 아시아 다음으로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목표(SDG 7)가 많음을 확인하였다. 상위 목표(7.0)로 기재된 사업은 다양한 SDG 목표가 고려되었지만, 세부 목표로 기재되었을 때는 에너지 및 인프라(7.1, 7.3) 혹은 기후변화-젠더(7.2)와 연관이 있어, 사업 추진 시 다양한 SDGs 연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보고서에서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수행된 ODA 사업을 대상으로 미시 분석을 진행하였다. 사회적 기업인 요크(YOLK)는 가정 내 전력을 보급하고 학생의 교육 참여 동기를 증진하기 위해 아프리카 등지에서 솔라카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솔라밀크(Solar Milk)라는 형태의 태양광 충전식 시스템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손전등을 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솔라밀크는 손전등 형태이며 손전등 외에도 휴대용 보조 배터리, 라디오 그리고 MP3 등 다양한 기능이 내재돼 있다.

〈그림 1〉 SDG 7번과 다른 목표 간 중복 사업 빈도수



자료: ODA KOREA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 요크(YOLK)의 솔라카우 프로젝트는 코이카 CTS 프로그램의 일부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개별 펀딩, 크라우드 펀딩, 기업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 동아프리카 그린 에너지 협력 방안 연구□의 제4장 내용을 참조.

[그림 2] 솔라카우와 솔라믹크



자료: YOLK 제공 자료.



솔라카우 설치는 2022년 탄자니아 잔지바르 응구자 지역에 위치한 음페니시니 중등학교에서 이뤄졌다. 연구진은 음페니시니 중등학교를 실험군으로 간주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조군 학교로서 같은 학군에 있으며 규모 및 학생 수준이 음페니시니 학교와 비슷한 학교를 선정하였다. 연구진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아프리카 그린에너지 협력 방안'의 일환으로 총 3곳의 중등학교에서 2022년 7월 중 기초선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022년 12월과 2023년 1월에 사업의 종료선 조사를 했으며,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2023년 7월과 8월에 추가 조사를 시행했다.

분석 결과, 학습 도구인 솔라카우의 지급이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효과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얻었다. 학습 도구를 지급함으로써 기대되는 학업 시간의 변화가 전체 학생에게서 일괄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드러난 점은, 학습 의지가 높고 학습 환경이 좋은 특정 학생 그룹에서는 공부 시간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학습 도구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할

때, 학업 시간 이외의 다양한 변인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학습 도구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개별 학생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결과로는 솔라카우를 도입한 후에 집 안 내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조명 도구인 솔라카우가 주어진으로써 학생의 가정 내 역할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학생은 집 안의 가사노동 시간이 증가하였지만, 남학생은 집 밖의 가사노동 시간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솔라카우 도입에 따른 가정 내 역할 변화가 학생의 학습 환경 및 시간 분배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또한 솔라카우 도입에 따른 온전한 학습효과를 보려면 부모의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방증한다.

요약하자면 첫째, 기후변화 완화 목표와 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SDGs 간 상호연계성(상호 관계와 상충 관계)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통합적인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솔라카우 프로젝트 분석 결과,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삶의 질을 높이려면 협력국의 의지나 인식 개선이 함께 동반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정리한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분야의 동향·전략 그리고 거시 데이터로 분석한 SDGs 상호연계성과 미시 데이터로 확인한 효과성 제고 방안이 향후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시대에 우리나라의 개발 협력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 1) 한국의 대(對)우루과이 신에너지 협력 방안 연구: 수소에너지를 중심으로



YKSP 6기  
연세대 강덕영

kang980901@gmail.com



YKSP 6기  
서울시립대 일반대학원 김가혜

kingahyekim@gmail.com

지구 온난화를 넘어 지구 열대화를 맞는 지금, 탈탄소 시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특히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중 중남미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촉진에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KOTRA에 따르면 2021년 총 에너지 소비량에서 신재생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남미가 29.2%로 유럽(19.7%)과 북미(13.2%)보다 높았으며, 2015~2021년 중남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연평균 5.0% 증가<sup>2)</sup>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글로벌 탈탄소화 추세와 중남미 지역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성장에 주목하여 우루과이의 재생에너지 자원과 한국의 수소에너지 기술력을 활용하는 우루과이와의 협력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먼저 신에너지는 화석연료를 변환해 이용하거나 화학반응에 의한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sup>3)</sup>이다. 다음으로 재생에너지는 햇빛, 물, 지열 등 자연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되게 하여 이용<sup>4)</sup>

한다. 수소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에너지이다. 이는 수소에너지가 그린수소, 그레이수소, 블루수소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레이수소와 블루수소는 기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생산되지만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생산된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배출 없이 청정 에너지원인 수소를 얻는 그린수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린수소는 탈탄소화를 위한 주요 에너지원으로 간주되며, 재생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할 때 잉여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림 1] 칼라수소 (그레이수소, 블루수소, 그린수소)



자료: SK E&S 미디어룸 (2022.07.11.)

1 본 원고는 KSP 인턴십(Young KSPian) 6기 지역연구우수보고서 선정작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본 원고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한국개발연구원의 공식적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2 KOTRA(2022), 중남미 신재생에너지 진출전략.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 1항



우루과이 정부는 2022년에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그린수소 산업을 장기적으로 육성하는 ‘그린수소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 로드맵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린수소의 생산 및 수출, 인프라 구축, 국내 운송 프로젝트 실행 등을 포함한다. 또한 3단계 로드맵의 각 단계는 그린수소 생산 및 수출 토대 마련, 내수 및 수출 시장 활성화, 수소 기반 생산 물질 수출 등을 포함한다. 우루과이는 항만, 전력 송전 구조 계획과 안전 표준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친환경 연료 수출을 위한 체제 수립에 집중하고 있다.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수소 산업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인프라 및 인적 자원의 확충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 보인다. 우루과이는 재생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한 수소에너지 생산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성공적인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지원 및 개발, 규제 개혁, 인증제도 마련, 참여 기업 인센티브 제공, 기술적·사회적 문제 대응 등 기후적 위험관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기후적 위험관리에서는 점점 줄어드는 우루과이의 강수량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루과이의 주요 전력 공급원인 수력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추후에 수소에너지 생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재생에너지 생산을 다각화하고 풍력·태양광에너지의 활용도 증대하는 등 화석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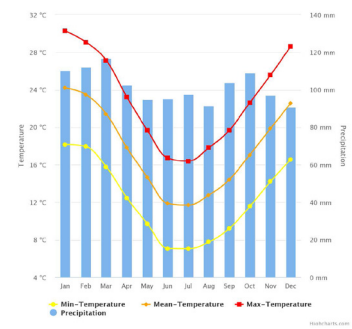
〈표 1〉 우루과의 그린수소 로드맵

| 우루과이 그린수소 로드맵 <sup>5)</sup> |   |  |   |
|-----------------------------|---|--|---|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린수소 경험 습득, 전문적 학습</li> <li>- 200-500MW RES 전력 용량 개발</li> <li>- 100-300MW 소규모 전력 용량 대비 50MW 정도의 수소 생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격적 프로그램 실행 단계</li> <li>- 내수 시장 및 수출 프로젝트 진행</li> <li>- 2-4GW RES 전력 용량 개발</li> <li>- 1-2GW 수소 생산 능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수 및 수출 시장 확장 가속화</li> <li>- 20GW의 RES 전력 용량 개발</li> <li>- 10GW급 수소 생산 및 수소 활용 생산물 생산</li> </ul> |
| 주요 내용                       | 안전, 기술 표준에 대한 허가 프로세스 개발, 항만, 송전 등 물류 구조 계획, 그린수소에 대한 국가 인지도 향상   | 그린수소에너지를 사용한 국내 운송 프로젝트 시행, 수출을 위한 엔지니어링 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유치, 경쟁력 확보  | 수출 확대를 위한 항만 인프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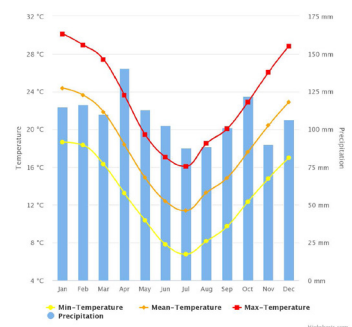
자료: Ministerio de Industria, Energía y Minería(2022), Green Hydrogen Roadmap in Uruguay.

[그림 2] 우루과이 평균 기온 및 강수량 비교

Monthly Climatology of Min-Temperature, Mean-Temperature, Max-Temperature & Precipitation 1961-1990 Uruguay



Monthly Climatology of Min-Temperature, Mean-Temperature, Max-Temperature & Precipitation 1991-2020 Uruguay



자료: World Bank(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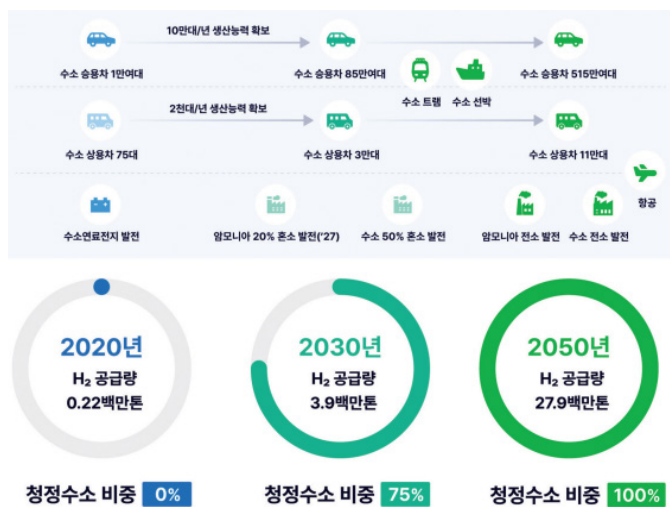


# CID 소식

한국은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함으로써 수소차,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생산, 운송, 활용 등 종합적인 산업 발전을 목표로 설정했다. 국제표준 반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21년에는 「수소법」을 통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22년에 새 정부는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수소 에너지 분야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대기업의 수소 산업 분야 진출과 함께 큰 시너지효과를 보이고 있다.<sup>6)</sup> 수소 산업체의 개수는 2015년까지 58개에 불과했는데 2021년까지 279개로 증가했으며, 매출액도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할 당시에 대비하여 2021년에는 474% 성장했다.<sup>7)</sup> 이러한 성장세와 더불어 현재 한국 정부는 전기·수소차 보급, 수소 생태계 시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해외 청정 수소 생산 및 구축 사업 예산(2023년)을 신규 편성하는 등 수소 산업 육성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어 꾸준한 투자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sup>8)</sup>

대한민국과 우루과이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각각 제조와 생산이라는 서로 다른 강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협업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루과이는 탄탄한 경제와 사회적 기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중남미 국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한국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제조업 강국으로서 수소 모빌리티 및 연료전지 기술에서 강점이 있다.<sup>9)</sup> 이러한 양국의 협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개발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루과이의 산업 규모를 고려할 때 수소에너지 생산량과 수소 잉여 생산물이 많은 편이 아닌 만큼 우리나라 시장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루과이에 수소에너지 저장소나 발전소를 세우고 이를 발판 삼아 대중남미 협력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양국이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 ▣

[그림 3] 우리나라 수소 활용 계획



자료: NABO 경제동향(제 41호)

6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수소 경제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Korea H2 Business Summit'과 같은 민간 수소 기업 협의체를 신설하여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7 산업연구원(2022), 국내 수소산업의 경제 현황과 경쟁력 강화 방안

8 산업통상자원부(2023).

9 오성주(2021), [전문가오피니언] 칠레의 그린수소 전략과 한국 기업들과 협력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brdctNo=318458&mid=a3020000000&systemcode=06>

## YKSP 7기 출장 소회 인터뷰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23/24 캄보디아 KSP,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YKSP 7기 이지윤  
jiyunlee11@gmail.com



23/24 타지키스탄 KSP, 고려대  
YKSP 7기 정하윤  
hayoon0329@naver.com



### 01 본인의 경험과 관련하여 YKSP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이지윤(캄보디아)** | 글로벌지식협력단지 한국경제발전전시관에서 인턴을 하며 외국인 방문자를 위한 영문 해설을 담당했습니다. 방문자 중 KSP 사업 실무진과 만나면서 저는 한국의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개발협력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지식 공유'라는 관점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KSP가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KSP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싶어 YKSP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정하윤(타지키스탄)** | 고등학생 때부터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해결 방안에 관심이 있었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실무를 경험해 보고 싶은 열망이 컸습니다. 국내 전문가와 함께 정책자문사업과 ODA 실무 현장에 참여하며 역량을 쌓을 수 있는 본 프로그램

이 최적의 기회라고 생각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02 '23/24년 KSP'의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출장 기간 전후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셨나요?

**이지윤(캄보디아)** | 출장 가기 전에는 캄보디아의 개요, 한-캄보디아 협력 관계에 대한 정보 그리고 출장 기간에 방문하는 실태조사 기관의 개요를 담은 출장자료집을 준비했습니다. 출장 중에는 회의록 작성, 사진 촬영 등 기타 출장 지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출장 이후에는 YKSP 인스타그램에 올릴 착수보고회 출장 일지 카드뉴스를 제작했습니다.

**정하윤(타지키스탄)** | 출장 가기 전에는 타지키스탄의 개황과 문화, 방문 기관에 대한 정보 등을 담은 출장자료집을 제작했습니다. 출장 중에는 회의록 작성 및 녹취, 사진 촬영을 주로 담당했고, 출장 이후에는 YKSP SNS에 출장 후기를 포스팅했습니다.

### 03 출장에 대한 전반적인 소감은 어떤가요?

**이지윤(캄보디아)** | 5일간의 착수보고회 진행 및 실태조사를 통해 이번 사업 주제인 산업폐기물과 캄보디아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산업폐기물 처리 및 관리 분야의 연구진 그

## CID 소식

리고 캄보디아 실무진과 논의하며 환경 분야의 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환경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연구진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도 하면서 환경 분야의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이 궁금해졌습니다.

**🇰🇲 정하윤(타지키스탄) |** 개발협력 실무와 이론에는 어떤 차이와 어려움이 있는지를 직접 체험해 보고 싶었던 제게 이번 출장은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타지키스탄 현지 분들과의 많은 면담을 통해 한 국가의 경제에는 굉장히 많은 요소가 맞물려 있으므로 발전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 04 이번 출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무엇인가요?

**🇰🇲 이지윤(캄보디아) |** 수석고문님과 교수님들 그리고 KDI 연구원님들의 열정이 가장 인상 깊게 남습니다. 하루 일정이 마무리된 저녁 식사 시간에도 사업에 대해 계속 고민하며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고 그분들의 사업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질문과 고민을 하며 이번 KSP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에 가장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연구진을 보면서 개발협력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 정하윤(타지키스탄) |** 현지에 처음 방문하여 협력 부처와 직접 소통하는 만큼 정책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연구 방향을 확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하면서도 효과적인 정책 자문을 위해 고민하고, 돌발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연구원분들의 모습에 큰 동기 부여가 됐습니다.

#### 05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 이지윤(캄보디아) |** YKSP를 통해 개발협력의 실무를 경험하면서 개발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연구진을 보면서 개발협력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분야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언어, 네트워킹, 책임감 등의 역량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구원분들께서 건네주신 덕담과 조언을 새겨두고 개발협력 전문가로 잘 준비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YKSP 활동도 최선을 다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하윤(타지키스탄) |** YKSP 활동은 제게 꿈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입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개발협력 사업의 진행 과정을 목도하면서, 더 가까워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배우며 다양한 형태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





# 2023 한국경제연구학회 동계학술대회 KDI 세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현을 위한 지식 공유와 국제개발협력 방안



2023년 12월 15일(금) 국제개발협력센터는 한국경제연구학회와 2023 동계학술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KDI 세션에서는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주요 연구과제를 발표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 및 현장 참석자와 함께 발표 내용에 대해 종합 토론을 진행하였다.

\* ①탈탄소 기술 품목의 무역 저해 요인 분석 및 시사점, ②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현을 위한 ESG, 무역을 위한 원조(AfT)의 역할 및 정책 과제, ③개발도상국 과학기술혁신 ODA가 혁신 역량 제고에 미치는 영향

**일 자** 2023년 12월 15일(금) **시 간** 13:00~18:00

**장 소** 글로벌지식협력단지(GKEDC) 무궁화홀

**주 최** KDI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연구학회

**프로그램**

| 시간                  | 프로그램(KDI 세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현을 위한 지식 공유와 국제개발협력 방안”   |
|---------------------|---|
| 16:30<br>~<br>18:00 | 좌장 김정욱(한국개발연구원)<br><b>발표 1. 개발도상국 과학기술혁신 ODA가 혁신 역량 제고에 미치는 영향</b><br>발표자: 최현이(한국개발연구원) 토론자: 김지현(과학기술정책연구원) |
|                     | <b>발표 2. 탈탄소 기술 품목의 무역 저해 요인 분석 및 시사점</b><br>발표자: 방호경(한국개발연구원) 토론자: 성한경(서울시립대학교)                            |
|                     | <b>발표 3.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현을 위한 ESG, 무역을 위한 원조(AfT)의 역할 및 정책 과제</b><br>발표자: 김상기(충북대학교) 토론자: 이우환(충북연구원)       |

2023 한국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포용적 성장전략’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전환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해 이해하고 기술적·사회적 문제에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센터의 디지털 및 탈탄소 기술과 지속가능개발 관련 주요 연구를 소개하며 관계 부처 및 연구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여러 학술대회에서 국제개발협력센터의 다양한 연구 성과가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 KDI CID 지식공유브리프 발간지 목록

|                           |  |
|---------------------------|--|
| <p>2023년 특별호</p> <p>▶</p> | <p>2023년 지식공유브리프 특별호를 기획하며 / 김정욱</p> <p><b>이슈톡</b> 2023년 국제개발협력을 되돌아보며 / 김은주<br/>2024년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전망:<br/>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개발금융의 역할 / 권율 ▶<br/>기술협력 ODA,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 / 방호경 · 이소희</p> <p><b>동향 분석</b> 2023년 동남아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특징 및 전망 / 이요한 ▶<br/>2023년 아프리카 ODA의 주요 특징 및 전망 / 김은경 ▶<br/>2023년 중남미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특징과 전망 / 정상희 ▶<br/>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일본의 개발협력 과제와 새로운 대응:<br/>2023년 개발협력대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 김은지 ▶</p> <p><b>KSP 포커스</b> 페루 경제특구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 로드맵 수립 / 윤근영</p> <p><b>CID 연구포커스</b> 탈탄소 기술 품목의 무역저해요인 분석 및 지식공유사업에 대한 시사점 / 방호경</p> |
| <p>2023년 3호</p> <p>▶</p>  | <p><b>이슈톡</b> 핵심광물 자원부국과의 개발협력 전략 / 김연규<br/>해외건설기업 진출현황 및 시사점 / 정창구</p> <p><b>동향 분석</b> 국제협력 플랫폼, KSP의 의미 / 이미연<br/>유럽연합의 개발도상국 디지털 분야 개발협력 / 오정은 ▶</p> <p><b>KSP 포커스</b>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KSP 사업 선정의 현황과 과제 / 이세훈<br/>베트남 창업생태계의 현주소와 단기적 개선 방안 / 서규혁</p> <p><b>CID 연구포커스</b>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제개발협력: 디지털 편 / 이진이</p>  |
| <p>2023년 2호</p> <p>▶</p>  | <p><b>이슈톡</b>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사후관리가 왜 중요한가? / 안충영 ▶<br/>ESG 연계 개발협력과 민간기업의 참여 / 이준희 ▶</p> <p><b>동향 분석</b> 기술협력사업의 PDM 활용 개선방안: 지식공유사업을 중심으로 / 강경재<br/>보건의료의 철의 삼각(Iron Triangle)과 스마트 헬스케어 / 김준</p> <p><b>KSP 포커스</b> KSP 주제분류체계 개편 배경 및 주요내용 / 노보배<br/>[우즈베키스탄 KSP+]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정책자문 / 한재현</p> <p><b>CID 연구포커스</b>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확대를 통한 국내외 청년의 글로벌 기회 확대 / 우혜영</p>   |
| <p>2023년 1호</p> <p>▶</p>  | <p><b>이슈톡</b>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국제개발협력 방향 / 임호열 ▶<br/>글로벌 불황에 대한 안정망, 국제개발협력 / 성한경</p> <p><b>동향 분석</b>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개발협력 사업추진 방식의 변화 / 김은주 ▶<br/>스마트 생산 분야의 개도국 정책자문 수요와 정책 제언 방향 / 이재광 ▶<br/>COP 27 손실과 피해의 주요 합의사항 / 황금물결</p> <p><b>KSP 포커스</b> 우즈베키스탄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핀테크 육성 / 유성희</p> <p><b>CID 연구포커스</b>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국제개발협력 및 지식공유를 위한 정책과제 / 김대용, 이소희</p>  |



|                          |   |
|--------------------------|---|
| <p>2022년 3호</p> <p>▶</p> | <p><b>이슈톡</b>      개도국의 혁신투자는 다다익선인가? / 정성철  <br/> 우리나라 '정책자문 ODA 사업'의 과제와 방향성 / 김성규 </p> <p><b>동향 분석</b>      개발협력평가와 변화이론(Theory of Change): 가능성과 도전과제 / 홍문숙 <br/> 아프리카의 정당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효과적 재정지원 방안 / 김유나, 홍은선</p> <p><b>CID 연구포커스</b>      국제협력과 지식공유 / 김정옥, 윤지희 <br/> 중미공동시장의 경제적 효과 및 한국의 중미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 방호경</p>  |
| <p>2022년 2호</p> <p>▶</p> | <p><b>이슈톡</b>      세계 식량 위기와 국제개발협력 / 이준원 <br/> 포스트-코로나 세계에서의 KSP의 중요성 / 윤석현</p> <p><b>동향 분석</b>      COVID-19 이후 디지털 전환과 ODA / 김지현  <br/>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장 메커니즘과 비시장 접근법 논의 동향 / 황금물결 </p> <p><b>KSP, EIPP 포커스</b>      [불가리아 KSP] 디지털 혁신산업단지로의 전환 전략 수립 / 한재현 <br/>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의 추진 배경 및 특징 / 김하아람</p> <p><b>CID 연구포커스</b>      연결성과 국제개발협력 / 홍성창</p> <p><b>YKSP 스토리/CID 소식</b>      YKSP, 그것이 알고 싶다 / 이태연</p> |
| <p>2022년 1호</p> <p>▶</p> | <p><b>이슈톡</b>      국제개발협력의 본질과 한국 개발협력체계 발전방향 / 정혁 <br/> 보호주의 진영화' 시대의 도래가 한국 개발협력에 던지는 함의와 과제 / 김양희 <br/>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법제: 녹색성장기본법에서 탄소중립기본법으로의 전환 / 장은혜</p> <p><b>동향 분석</b>      KSP 고도화 전략과 지식공유사업법(가칭) / 홍성창, 김서영, 이미연 <br/> 국제탄소시장과 ODA 활용 동향 / 김예림</p> <p><b>KSP, EIPP 포커스</b>      [페루 KSP] FTA 양적 확대에서 질적 활용으로, 페루에게 전하는 한국의 경험 / 김지원 · 윤근영 <br/> [세르비아 KSP] 도시개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송지은</p> <p><b>CID 연구포커스</b>      2021 CID 국제개발협력 연구 / 우혜영</p>   |

▶ 는 KDI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해당 게시판으로 연결,  의 경우 해당 유튜브 영상으로 연결됨.





## 독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식공유브리프는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원고 기고를 받습니다.  
(소정의 원고료가 있습니다)

**| 문의** 이소희 연구원(044-550-4475, sohee@kdi.re.kr)

#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 발행** KDI 국제개발협력센터(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 발행인** 김정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 편집장** 방호경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전문위원

**| 편집위원** 김대용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장 · 김민정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총괄

**| 편집간사** 이소희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정책연구팀 연구원

**| 문의** 044-550-4475, 044-550-4280

※ 이 자료는 국제개발협력/지식공유 현안에 대한 이해증진과 국제개발협력센터 업무/성과 홍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개발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